



심청, 세상을 향해 당당히 피어나다

푸른 기와집 아이의 특별한 효도 이야기

시도움받아 이나경쌤



작가프로필

부안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자라, 오랜 시간
병원과 치매센터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건강을
보살펴온 동화작가입니다.

매일 걷는 산책길에서 만나는 패랭이꽃과 다
알리아, 그리고 소소한 텃밭을 가꾸며 자연이
전하는 작은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손주들에
게는 상냥하고 명쾌한 '깔끔정리' 할머니이자
친구로 통합니다.

기본과 상식이 깃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성
실하게 쌓아온 삶의 온기대로 어린이들의 마
음에 싹을 틔우는 단정하고 어여쁜 동화를 짓
고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 완성

이 나 경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듯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1장: 인당수 다이빙은 거절합니다!

바람이 쌩쌩! 파도가 출렁!

“바다에 뛰어들면 쌀 삼백 석을 주겠소!”
뱃사람들의 말에 청이가 당차게 외쳤어
요.

“희생은 거절해요! 내 삶은 내가 지켜
요!”

청이는 획 돌아서서 어디론가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2장: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내 힘으로 아버지를 모실 거야!”
청이는 긴 머리를 묶고 성큼성큼 걸어갔
어요.

똑똑! 청이가 도착한 곳은 AI 기술을 배
우는 학교였어요.

청이의 두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
리기 시작했어요.



3장: AI와 함께 꿈을 키워요

사각사각, 밤깊이 공부하는 청이!

“AI 선생님,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청이는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는 멋진 기술자가 되었어요.

청이가 쿨쿨 잠든 밤, 고향 집의 불빛도 환하게 켜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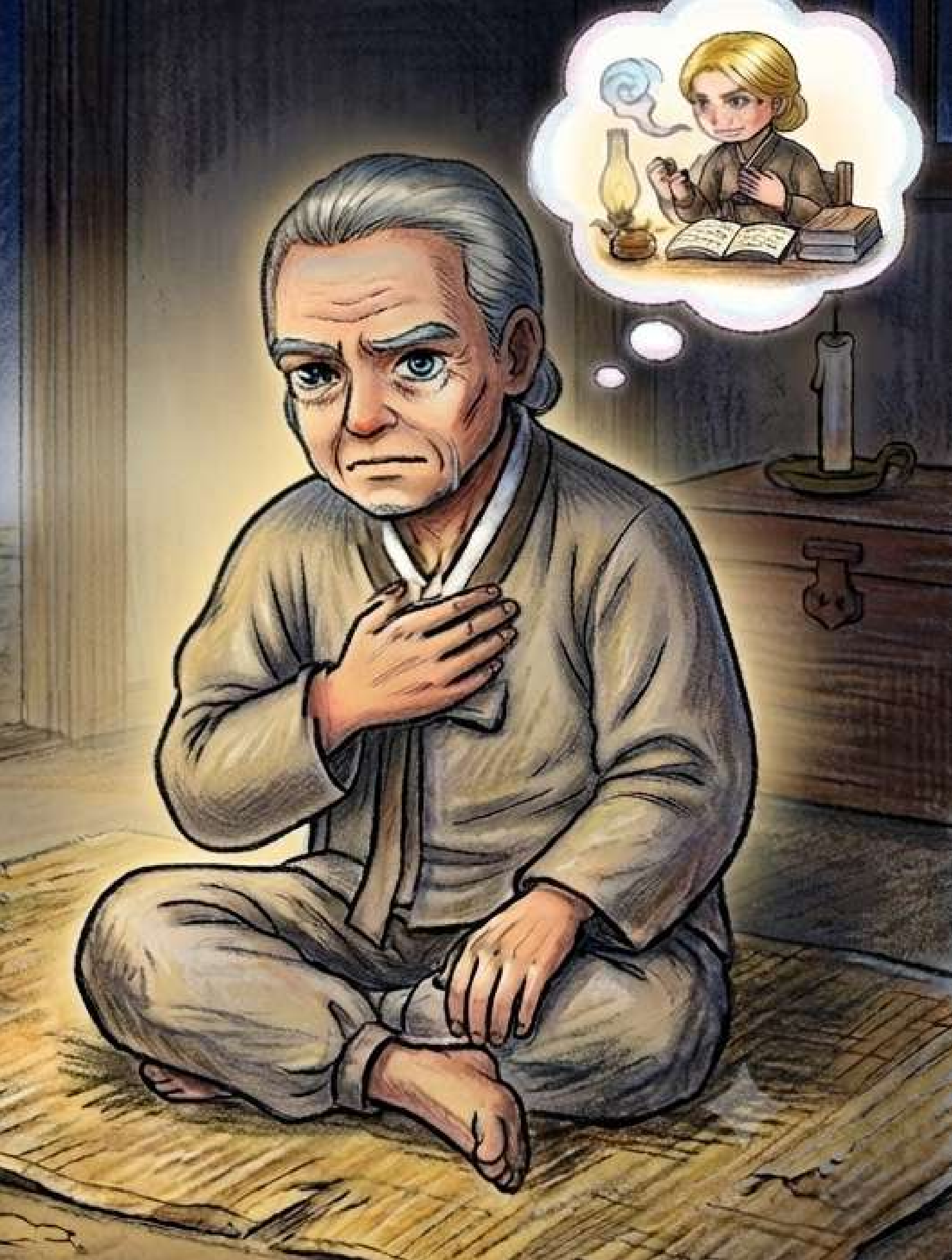


4장: 혼자 남은 심 봉사의 눈물

“흑흑, 내가 우리 청이에게 짐이 되는 걸
까?”

집에 혼자 남은 심 봉사는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그때, 밤늦게 돌아와 땀 흘리며 공부하는
청이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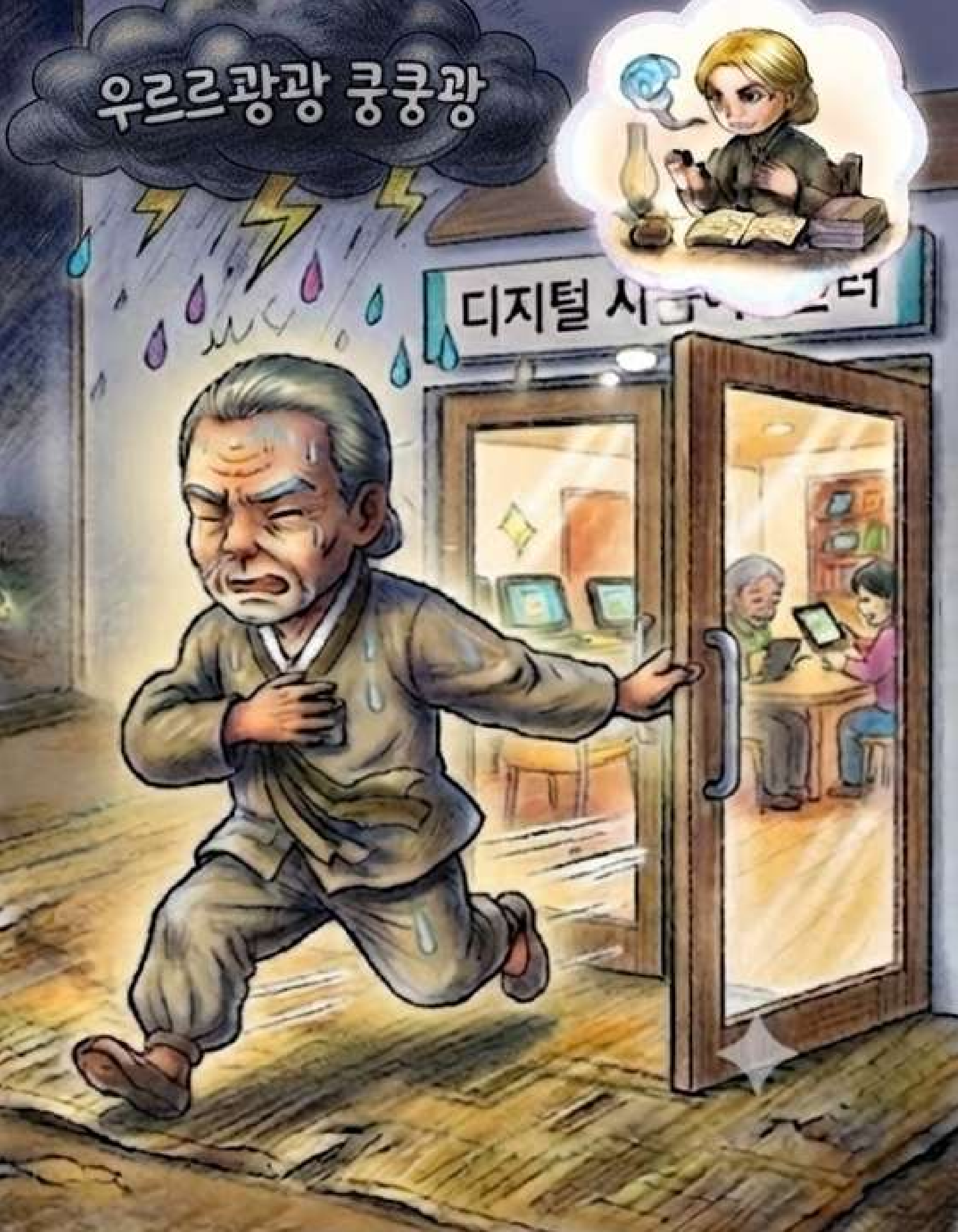


5장: 심 봉사의 위대한 결심!

“나도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순
없지!”

땀 흘리는 청이의 소리에 심 봉사
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심 봉사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세상을 배울 곳을 찾아 힘차게 밖
으로 나섰어요.



6장: 디지털 센터로 달려가요!

빗방울이 똑똑! 천둥이 우르르광광!
“에이취!” 재채기가 나와도 심 봉사는 다다다 달렸어요.

쿵! 어르신 배움터 문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7장: AI 음성 비서와 친구가 되다

올록볼록 점자를 꼭꼭 만지던 심 봉사가 스마트폰을 터치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마트폰 속 AI 비서의 목소리에 심 봉사의 입가가 싱글벙글 올라갔어요.

심 봉사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똑똑한 눈이 생겨난 거예요.



8장: 스스로 살아가는 힘

“음성 비서야, 물은 어디 있
니?”

이제 심 봉사는 남의 도움 없이
도 밥을 냅냘, 물을 꿀꺽 마셨어
요.

혼자서도 멋지게 살아가던 그
때, 거리에서 익숙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9장: 당당하게 다시 만난 부녀

“아버지!” “우리 청이구나!”
멋진 AI 기술자가 된 청이와 스
마트폰 달인이 된 심 봉사가 만났
어요.

희생 없이 각자 멋지게 성공한 부
녀는 서로를 와락 껴안았답니다.



10장: 따로 또 같이, 진짜 행복!

바람이 살랑살랑, 마루에 앉은
부녀가 웃음을 터뜨려요.

청이도, 아버지도 각자의 멋진
삶을 가꾸어 나가지요.

눈부신 미래를 향해 두 사람이
힘차게 외쳤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